

대전시 생태하천관리 본격화

정환도 _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대전시에는 남북으로 3대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흐르고 있다. 이 가운데 원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대전천이 오는 5월부터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전시가 2005년 11월부터 추진한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이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천은 하천수질개선사업 등 1990년부터 하천하상에 하수차집관거설치에 의해 우수와 하수, 하천수 및 복류수까지 곧바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전천은 이러한 것에 의해 하천유지용수가부족하여 수중식생이 사라지고, 자연의 자정능력까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대전시의 수환경관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유지관리, 그리고 살아있는 하천공간조성을 위해, 대전시 3대 하천을 살아있는 자연생태적 친수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첫 번째 사업으로써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을 추진하였다.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은 총 사업비는 117억원으로, 한밭대교 부근에 취수여울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취수한 하천수와 대청댐 원수 7만5000t의 물을 매일 8.7km 상류인 옥계교로 이송해 수심 10~30cm의 하천 유지용수로 방류되는 것으로 계획함.

이번 유지용수 확보사업은 취수여울 145m, 이송관로 8.7km, 펌프장 1곳을 설치되었음